

# 당선의 내항 (입항 및 실패)

(唐船: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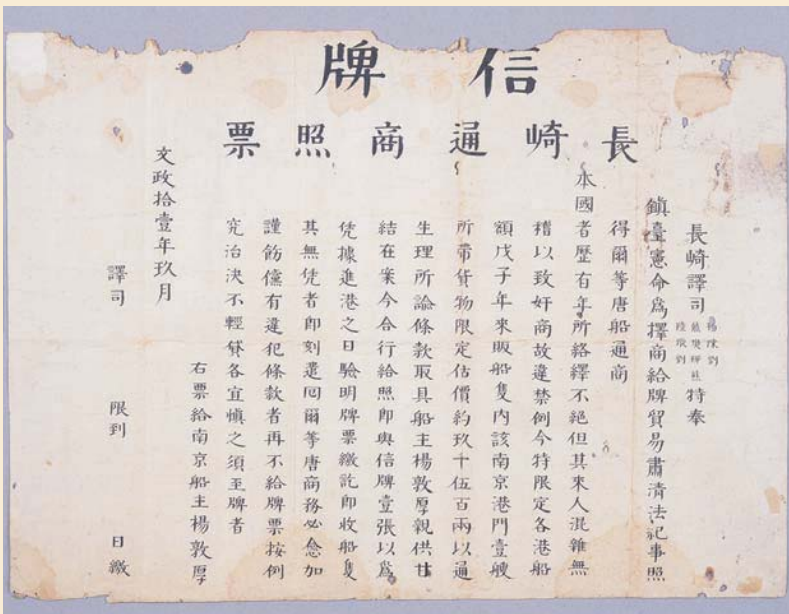
나가사키항구 입구에 임시 정박한 당선 (“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”의 일부), 이시자키 유시 작품, 1802년, (1권 견본착색 42.5cm×790.0cm)
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## ■나가사키 항구에 임시 정박한 당선 (위 그림)

이시자키 유시(石崎融思)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책과 그림 등을 감정하고,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역 관리로 일하는 등 바쿠후 말기 나가사키 미술계의 권위자였습니다. 이 그림은 중국에서 온 배가 입항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신치와 당인주거지의 모습 등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직과 당시의 장면 등의 부연 설명이 함께 붙어있는 등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.

당선(唐船)이 나가사키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, 일단 당선이 나가사키항구에 모습을 보이면, 노모(野母: 나가사키의 지역 이름)의 정찰보초소에서 배가 도착했음을 알렸고, 이 연락을 받은 순찰선이 출동하였습니다. 당시에는 돛대 등 배의 고장을 위장하여 입항을 늦추고 그사이에 밀무역을 하고자 계획하는 당선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순찰선은 물과 채소 등의 생필품을 싣고 출동하여 당선이 조속히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재촉하였습니다.



## ■실패 · 나가사키 통상조표 (아래 사진)

실패(信牌)란 1715년에 나가사키의 무역 제한령(正徳新令)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무역 허가증으로, 이것을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무역을 허가받을 수 없었습니다. 실패의 발급은 나가사키부교(長崎奉行: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)의 명을 받아 당통사(唐通事: 중국어 통역관)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. 이 실패는 무역액은 은의 경우 최고 6,000관까지로 제한하고, 동은 연간 300만 근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중국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실패는 일본의 전통종이가 사용되었으며, 발급 대장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. 또한, 발급 대장과 실패를 계인(契印)하였으며, 그 도장은 나가사키부교소(長崎奉行所: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관공서)에 엄중히 보관되었습니다.

실패 · 나가사키 통상조표, 1828년 9월,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(1장 지본복쇄 37.3cm×50.5cm)